

장재민 - 종근당 예술지상 작가노트

정지된 한 장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발견되는 새로운 사실들은 경험한 장소-사진-그리기 사이에 시공간적 여백을 인식하게 한다. 경험한 시간 안에 '나에게 없는 시간'을 불현듯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낯선 장소와 마주하는 순간에 명시적인 언어로 환원되지 않는 감각, 보통 '생경함'이라고 부르는 감각 기억은 캔버스로 돌아온 나에게 구조라는 견고함 보다 공간이라는 상태를 더 가깝게 떠올리도록 이끈다.

나에게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순간적인 결정의 연속이다. 즉흥적인 판단에 의한 그리는 것은 관습적인 시선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선택된 이미지에 나타난 대상은 각기 다른 물감의 성질, 신체가 개입한 흔적들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존재감이 부여된다. 기억을 바탕으로서의 그리기와 그림을 낀 시간 바라보는 것을 지속하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발생된 우연한 단서에 의해 풍경은 재구성된다.